

# “법당없어도 법회 열의는 최고”

## 부경포교사단 청파팀, 군포교 위한 법당 건립 고심

최근 “군에 입대한 10명 중 1명은 부적응병사”라는 통계가 발표됐다. 한창 사회로 나아갈 푸른 꿈을 꾸는 청년들이 군 입대라는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로 받는 심리적 외상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특정 소수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들, 혹은 입영영장을 받고 입대를 기다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 군대 문화, 고된 훈련, 제대 후 진로 부담 등으로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불법으로 수호하기 위해 부산·경남포교사단 군포교6팀 청파팀(팀장 조용재)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정월대보름인 2월 28일 부산 구례동 육군 제54사단 125연대 2, 7대대 군법당 호국백양사에서 열린 정기법회에는 15명의 병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20명 남짓한 법당에서 천수경, 예불, 반야심경, 삼귀의, 보현행원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했다. 장병들에게는 법회가 낯설고 경전의 글씨가 어려울 법도 한데, 포박포박 힐찬 목소리로 능숙하게 리듬까지 타며 독송하는 품은 예사가 아니었다.

15명의 장병들이 법회 봉행에 능숙한 베테랑(?) 불자가 된 것은 청파팀의 역할이 컸다.

청파팀 김옥희(51, 법병 관음화) 포교사는 법문에서 “얼마 전 동계를



청파팀의 지도로 참선 중인 장병들.

리픽에서 세계신기록을 갱신한 김연아 선수에게도 시간이 멈춘 듯한 인고의 성장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군복무 동안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부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 항상 바른 생각과 언행으로 선업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파팀 포교사들은 김 포교사와 같이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로 일상의 화재를 통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청파팀의 법문은 어렵거나 불심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생활법문인 깨달음 장병들에게 반응은 좋았다.

청파팀은 법회만 봉행하지 않는다. 법회를 마친 후 항상 법회에 참석한 군장병들과 대화를 하며 살아 가는 이야기를 나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제대 후 가까운 사람에서 수계를 받고 재직사찰을 정해 자주 찾아가길 권한다. 또,

불교대학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포교사가 되면 언제든 후배 군인들을 찾아와 법회에 동참하도록 할리기도 한다.

법회가 열린 호국백양사는 지난해 6월 개관했다. 법당이 불사가 되기 전에는 부대 식당에서 2년 넘게 법회를 열어왔다. 법회가 열리는 일요일 오전 10~11시, 부대 식당의 한쪽에서는 점심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목탁 소리와 도마 소리가 겹쳤고, 향 냄새와 음식 냄새는 섞였다. 혼란스러운 상황 만큼 환경도 열악했다.

식당 의자에 앉아야 하는 탓에 부처님에게 삼배를 올릴 수도 없었다.

어려움 끝에 겨우 20명 남짓한 빈 건물을 리모델링 해 호국백양사로 장엄했다.

청파팀의 확고한 신념과 군포교를 향한 열정은 최근 53사단 125연대 4대대 법당 건립으로 이어지고

여 새롭게 철골 구조를 올리는 등 전방적인 증축에 관한 설계를 마쳤다. 하지만 불사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불사 기금마련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장병들은 법당이 없어 식당에서 법회를 보는데도 법회에 높은 열의를 보여 왔다.

청파팀 조용재(50, 법병 일관) 팀장은 “120명 중 휴가 및 기타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원을 제외하면 70~80명이 남는다. 그중 50여 명이 매월 정기법회에 동참한다”며 “한 달에 한번이던 법회를 올 하반기부터 매주 일요일법회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하루 빨리 법당 불사가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파팀의 뜨거운 원력과 신심만큼이나 불자들의 큰 지원이 아쉽다. 010-3845-8467 한동수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청소년들 위한 국제교류 눈길

## 부산파라미타, 정기총회서 2010년 중점사업 발표

올해부터 불자 청소년들을 위한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및 템플스테이를 집속한 해외 어학연수 등의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 이하 부산파라미타)는 3월 3일 부산 양정동 라메르뷔페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해 감사 및 자산현황 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는 2009년 활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전임 우수지도자 표창 및 신인 집행위원 임명, 백명숙 협회장 인사말, 2009년 총회 결과 및 감사 보고, 자산현황 보고, 부의사항, 공지사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파라미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글로벌비대 청소년에게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주의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를 비롯해 △뉴욕 백림사에서 진행될 뉴욕 어학템플스테이 △부산파라미타 창립 기념 제3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한문화재 한지킴이 보고대회와 청소년지도자 문화재해설사 양성교육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자기성장 프로그램인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운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이끄는 백명숙 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집행위원들이 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와 ‘뉴욕 백림사 어학템플스테이’는 부산파라미타의 국제교류활동 활성화 및 정착화, 청소년의 국제역량 강화와 세계적 포래문화 형성의 기반이 될 선진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는 7월 26~30일까지 부산과 경주 일원에서 열린다. 참가자는 추후 공지를 통해 한·일 청소년 80명을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또 뉴욕 내 한국사찰 백림사에서 열리는 ‘뉴욕 어학템플

스테이’는 8월 1~21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백명숙 협회장은 “부산파라미타는 지난해 열린 제2회 전국청소년합창대회를 비롯해 교원특수분야 직무연수,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 연합캠프, 문화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협회장은 “올해에는 뉴욕어학템플스테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유익한 단체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안국불교대학 개관·입학식 봉행



3월 2일 안국불교대학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 중인 스님들.

안국불교대학(학장 무관)은 3월 2일 대학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관 및 입학식을 봉행하고 201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 및 입학식에는 이사장 수불 스님(부산 안국선원장)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 스님, 정나형 부산시 정무부시장 등 2000여 사

부대중이 참석했다.

수불 스님은 인사말에서 “석·박사를 배출하는 대학원대학을 목표로 불교교육의 산실로 자리잡겠다”며 “안국불교대학 개관에 힘을 보탠 불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 템플스테이 개최 범어사, 접수 시작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3월 27~28일 참선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경내 휴휴정사에서 열리는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주지 정여 스님의 법문, 108 염주 만들기, 참선, 발우공양, 암자 순례, 윤력, 사찰 예절교육 및 예불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템플스테이에는 불자 및 비불자, 외국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40명을 접수받는다. 한편, 범어사는 산행및 수행정진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051) 508-5726

박지원 기자

# 100원 동전 모아 작은 사랑 큰 기쁨

## 두승복지관, 교복·장학금 전달

사회복지법인 늘기쁨마을 두승복지관(이사장 지현, 부산 관음사 주지)은 2월 26일 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예비중학생 12명에게 교복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350만원 상당의 교

복과 장학금은 복지관이 ‘2010년 작은사랑 큰 기쁨 - 1일 100원 동전 모으기’ 사업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교복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IVY클럽 괴정·다대점

이 후원해 2004년부터 열렸으며, 교복마련에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어 3월 2일에는 김명자 복지관장 및 장학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두승중합사회복지관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는 부산대 사범

박지원 기자



이재복 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되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거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빛 살림

# 정골요법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젓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인,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정육부의 뿌리, 비틀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생,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재정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을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통증자유법수록!

##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